

## 손자녀 양육 조모의 양육부담감에 따른 심리적 복지-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신효식\* · 이선정\*<sup>1)</sup>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 The Study of Child-Rearing Burde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Grandmothers Raising Preschooler Grandchildren -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s

Shin, Hyoshick\* · Lee, Seonjeong\*<sup>1)</sup>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aring burde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grandmothers. Data was collected from 249 grandmothers raising preschooler grandchildren who live in Gwangju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s. The method used for data analysis wa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using SPSS 22,0 and Amos 22,0.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child-rearing burden influenced social supports of grandmothers. Social supports influenced psychological well-being of grandmothers. Child-rearing burden influenced psychological well-being of grandmother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indicated that social support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aring burde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ey words:** 양육부담감(Child-Rearing Burden),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심리적 복지(Psychological Well-Being)

---

1) 교신저자: Lee, Seonjeong, 77 Yongbong-ro, Buk-gu, Gwangju, 500-757, Republic of Korea  
Tel: 062-530-2520, Fax: 062-530-2529, E-mail: [overwhelming@hanmail.net](mailto:overwhelming@hanmail.net)

2)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과제번호: 2013-2525)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I. 서론

여성 취업에 대한 사회여건과 의식구조의 변화로 인해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 Statistics Korea(2016)의 조사에 의하면, 25세 이상 54세 이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9.6%에 이르고, 30대의 고용율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의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서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남녀 모두 육아부담을 꼽은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녀 양육문제가 지목된다.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의해 보육비 지원이나 어린이집 확대와 같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맞벌이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즉 보육서비스의 질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부모의 취업 유형과 근로 시간에 따라 보육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지 않으며, 보육 시간 또한 맞벌이 가정의 요구에 부응하여 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Kim et al., 2015).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부모 외 조부모나 다른 가족원 혹은 베이비시터에 의한 돌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공적 보육 체계보다는 혈연관계에 의한 사적 보육 체계를 더 선호한다(Kim & Jeong, 2006;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2). 2009년에 시행된 한국아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연령이 만 2세 미만인 영아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 대리 양육자와 아동과의 관계는 외할머니인 경우가 46.2%, 친할머니가 34.3% 순으로 나타나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사례가 전체의 80.5%를 차지하고 있었다(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0). 이처럼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영유아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삶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손자녀 양육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이혼, 사망, 가출, 별거와 같은 가족안정성의 약화로 인한 가족해체이고, 둘째는 취업한 성인자녀 부부를 돕기 위한 것이다(Lee & Han, 2008). 손자녀 양육과 관련한 국내 연구의 경우, 2000년 이전까지는 주로 가족해체나 폭력 등의 문제를 겪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내 ‘대리부

모’로서의 조부모 역할에 한정되었다가 2000년 이후 맞벌이를 하는 성인자녀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다(Kwon, 2015).

조부모에게 양육자로서의 역할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감소하게 되는 사회활동을 손자녀 양육으로 대체하게 함으로써 삶의 무의미함 대신 삶의 만족을 느끼게 해 준다(Hong, 2004). 특히, 영유아기 손자녀 양육은 부모기에 몰랐던 양육의 기쁨과 혈육에 대한 사랑, 노부부 사이의 윤택함, 부모-자식 간 연결 고리가 되어주는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Kim, 2012). 또한 조부모는 손자녀에게 자신이 일생동안 쌓아온 지혜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면서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Lee, 2008). 손주를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대물림될 수도 있고, 노인의 정서적 고립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족공동체 회복이라는 의미도 지닌다(Kwon, 2015). 조모들이 경험하는 손자녀 양육의 긍정적인 경험들은 노년기에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강점으로 작용하여 조모들의 안녕감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기도 한다(Kim, 2011). 또한 손자녀 양육을 통해 조부모는 그들의 손자녀와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우울이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Goodfellow, 2003).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모가 되는 연령이 중년기 후반이나 노년기에 접어들 때이기 때문에 신체기능은 저하되고 자녀의 결혼 등으로 인해 역할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라 손자녀 양육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성인자녀의 상황에 맞추어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락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혈연 중심 가족문화 특성에 기인하여 손자녀의 양육책임감을 강하게 갖는 편이다. 즉 평온한 노후를 꾸려야 할 노년기에 자신의 기대와 달리 비자발적으로 손자녀의 양육자가 되면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는 양육수행으로 인하여 몸이 피로하고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거나 훈육의 어려움, 외출하기 힘들어져 고립되는 점과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는다(Kim, 2001). 또한 자신을 위한 시간 부족, 다음 손자녀도 돌봐주어야 한다는 부담감, 배우자 및 자녀와의 갈등, 경제적 부담과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점점 나빠지는 건강, 가사일과 육아에 대한 이중고와 같은 신체적 스트레스 등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된다(Kim, 2007; Kim & Seo, 2007; Kim, 2009; Jo,

2012). 조부모는 손자녀에게 자신이 적극적인 양육자가 아닌 단순히 상징적이거나 도구적인 보호자 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심리적 부적응이 초래되기도 한다 (Kelley et al., 2000). 게다가 자녀세대와 동거하거나 하루 종일 손자녀 대리양육을 수행하는 조모들의 경우에는 손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소극적인 개념의 양육은 물론 손자녀의 교육적 역할과 함께 취업모를 대신한 적극적인 부모역할까지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가중된다(Jo, 2012).

양육부담감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은 대부분 발달이나 건강 상 문제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고 (Jung, 2002; Ko, 2006; Mandlco, Roper, & Dyches, 2007; Yu, 2009; Park, 2011; Xiong et al., 2011; Jeong, 2012), 손자녀 양육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육부담감과 만족감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Chae, 2010; Seo, 2011).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또한 일반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를 다룬 연구들에 비해 미미하다(Baek, 2006; Han, 2008; Lee & Han, 2008; Kang, 2011). 손자녀 양육 관련 연구들의 경우도 자녀의 이혼이나 별거 등에 의해 손자녀를 전담해야 하는 조손 가족을 중심으로 실시된 연구(Heywood, 2002; Pruchno & Mckenney, 2002; Baker & Silverstein, 2005; Bae, 2007; Chu, 2007; Kim, 2007; Nam, 2008; Kim, Kim, & Jung, 2008; Lee, 2008; Lee & Kim, 2011; Song & Lee, 2011)가 대부분이고, 자녀의 취업을 이유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 대한 연구 (Kim, 2001; Oh, 2007; Kim, 2011; Kim, 2012)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맞벌이 가정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양육부담감에 따른 심리적 복지를 연구하는 것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양육부담감과 심리적 복지를 중재하는 매개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개인의 안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해 줌으로써 부담감을 줄이고 안녕감을 높이는 기능이 있어(Kwon, 2000), 노년층의 삶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Kim and Kim(2004)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손자녀를 돌보는데 따른 조모의 만족감이 높다고 하였다. Musil(1998)은 정서적 지지 혹은 도구적 지지가 부족할 때 조손가족 조부모의 우울감이 높다고 하였고, Choi(2002)는 사회적 지지만이 양적으로 빈약한 조모의 우울 정도가 심하다고 하여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Kwon(2000)과 Yun(2005)은 사회적 지지가 양육부담과 부적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여 양육부담감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에서는 맞벌이 자녀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양육부담감과 심리적 복지를 중재하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대해서는 Kim and Chung(2011)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밝혀진 바가 없다. 하지만 연구 대상을 달리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Lee, 2005; Lim, 2009; Park, 2011; Lee, 2014), 양육과 관련한 부정적인 경험과 심리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Lee(2014)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역할을 하여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낮게 인식하고 낮은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 Lim(2009), Park(2013), Lee(2015)의 연구도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Kim(2007)과 Lee(2007)는 노년기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사회적 지지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들이 경험하게 되는 양육부담감이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대한 중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양육부담감과 심리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양육부담감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직·간접경로를 사회적 지지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밝히고, 심리적 복지와 양육부담감의 연관성을 확인하여 조모들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조부모 역할을 경험하게 되는 생애전환기 여성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을 설정해 줄 것이며, 중등학교 가정교과에서 가족의 이해(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가족 관계와 의사소통) 및 진로와 생애설계(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영역을 지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양육부담감, 사회적 지지, 심리적 복지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 2.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양육부담감과 심리적 복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역할을 하는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심리적 복지

심리적 복지(psychological well-being)란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며 삶의 과정에 있어 성공적인 적응을 측정하는 개념이다(Whang, 2008). 심리적 복지는 매우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개념과 영역은 연구자마다 일치하지 않고 연구대상자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Lee, 2005). 그러나 Bradburn(1969)이 심리적 복지는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가 함께 공존한다는 견해 이후 이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었고(Baek, 2006), 최근의 연구들(Kim, 2004; Lee, 2005; Baek, 2006; Kim, 2008; Park, 2011; Lee, 2012)은 생활만족도,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차원과 우울이나 불안 등의 부정적 차원으로 심리적 복지를 정의하고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심리적 복지의 부정적 차원과 긍정적 차원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우울과 행복감을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지금까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들은 빈곤과 건강상의 어려움 등으로 매우 높은 우울을 경험하고 있거나 생활만족도가 낮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Song, 2012), 사회적 역할이 감소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외로움을 손자녀 양육을 통해 충족하기 때문에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다(Hong, 2004).

### 2. 양육부담감,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

#### 1) 양육부담감과 사회적 지지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를 연구한

Kwon(2000)의 연구에서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양육부담과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살펴본 Ohem and Chun(2006)의 연구에서도 양육부담과 사회적 지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클수록 사회적 지지를 낮게 인식하였다. Jo(2008)의 연구에 의하면 조손가정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쳐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는 낮았으며,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Lim(2009)과 Lee(2005)도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에 부적 영향을 미쳐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지각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높다고 하였다.

#### 2)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

사회적 지지는 개인적·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여러 가지 형태의 자원을 지원받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노인들은 생활의 변화로 인한 위기 혹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회적 지지가 노인에게 주는 영향력은 크다고 볼 수 있다(Song, 2012).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모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Kelley et al.(200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심리적 고통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Song(2012)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e(2007)는 비공식적 지원망에 의한 정서적 지지는 낮은 우울, 높은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Kim and Kim(2004)의 연구에서도 조손가족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Kim(2005)의 연구에서는 손자녀 양육 조부모가 받는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 부적인 관계가 있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우울은 낮았다. Yang, Chung, and Kim(2008)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 3) 양육부담감과 심리적 복지

양육부담감이란 가족이 아동을 돌보면서 겪게 되는 고통스럽

고 어려운 부정적 영향 및 불편감으로(Zarit, Reever, & Bach-Peterson, 1980), 양육스트레스보다 구체적이고 국한적인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유사한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Park, 2011).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는 연령 상 중년기 후반이나 노년기에 접어드는 연령이기 때문에 체력 저하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육아활동으로 인한 사회활동의 제한이나 고립감과 같은 심리적 부담도 느낄 수 있으며, 양육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가족 간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다(Dowedel & Sherwen, 1998, Kwon, 2010). Choi(2014)는 손자녀 돌봄부담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낮다고 하였다. Yang(2009)의 연구에서 조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Bae(2007)의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는 공동양육조부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나 생활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k(2013)도 양육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인 양육의 어려움은 우울에 영향을 미쳐 양육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낄수록 우울은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Yang, Chung, and Kim(2008)의 연구에서도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조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 4) 사회적 지지의 매개역할

양육부담감과 심리적 복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양육 역할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사회적 자원이 고갈되어 심리적 복지 수준이 낮아지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함으로써 심리적 복지를 낮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를 대상으로 양육부담감과 심리적 복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대상을 달리한 관련 연구들을 토대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여성노인의 생활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경로를 규명한 Kim(2008)의 연구는 생활스트레스가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를 낮추었지만, 사회적 지지가 생활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 우울을 낮추고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간접경로과정을 가진다고 하면서 사회적 지지가 생활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서 대처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생활스트레스라는 부정적 요인으로부터 여

성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장애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을 연구한 여러 연구(Lee, 2005; Lee, 2007; Park, 2013; Kim, 2015)에 의하면,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역할을 하여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낮게 인식하고, 낮은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Lim, 2009). 그러나 맞벌이 가정 영유아 손자녀 양육조모의 삶의 만족도에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Kim and Chung(2011)의 연구에서는 손자녀 양육에 따르는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조모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밝힌 연구는 부족하고, 연구대상을 달리한 다수의 연구들에서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하는 자녀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들을 대상으로 양육부담감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맞벌이 자녀를 대신하여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기 손자녀를 최소 6개월 이상 양육하고 있는 지원양육 조모들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이다. 지원양육 조부모는 성인 자녀가 1차적 양육을 하지만 부모가 취업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손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자료 수집은 2016년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배포된 300부 중 부실 기재되거나 연구대상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249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49

Variables	Category	N(%)	Variables	Category	N(%)
<b>Grandmother's Age</b>	Less than 59	47(18.9)	<b>Grandmother's Health Condition</b>	Good	127(51.0)
	60-69	178(71.1)		normal	91(36.5)
	More than 70	25(10.0)		Bad	31(12.5)
<b>Grandmother's Educational Level</b> (n=248)	Elementary school and less	37(14.9)	<b>Husband</b>	Yes	189(75.9)
	Middle school	68(27.4)		No	60(24.1)
	High school	106(42.8)	<b>Grandchild's Age</b>	0-2	98(39.4)
	University grad and more	37(14.9)		3-4	78(31.3)
<b>Rearing Reason</b> (n=246)	Parent' duty	55(22.8)	<b>Rearing Suggestion</b> (n=245)	I made a suggestion first	61(24.9)
	Joy & Affection	56(23.2)		Children made a suggestion and I agreed	119(48.6)
	Financial support	17( 7.1)		Children made a suggestion and I was disinclined	27(11.0)
	No place to trust	79(32.8)		We were living so together	15( 6.1)
	Disagreeableness to leave it to others	34(14.1)		Both children and me were disinclined	23( 9.4)
<b>Rearing Hours</b> (n=247)	1-3 hours	20( 8.1)	<b>Reward (1,000 Won)</b> (n=239)	Zero	39(16.3)
	4-6 hours	92(37.2)		300else	40(16.7)
	6-9 hours	65(26.3)		310-600	75(31.4)
	10-12 hours	52(21.1)		610-1,000	74(31.0)
	13hours more	18( 7.3)		1,010 more	11( 4.6)
<b>Satisfaction of Reward</b> (n=243)	Dissatisfaction	31(12.8)			
	Fair to middling	103(42.4)			
	Satisfaction	109(44.8)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는 Park(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와 Shin(1997)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원에 대한 기대 측정도구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Han(200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행위의 속성을 도구적지지,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로 나누어 측정하는 것으로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적 지지는 각 개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 금전 등의 직·간접적 도움을 의미하며, 정보적 지지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언이나 정보 등을 제공받는 것, 정서적 지지는 타인으로부터의 신뢰와 애정, 친밀감 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

2. 조사도구

1) 양육부담감

양육부담감은 Kim(2011)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양육자 역할 부담에 관한 6문항이다.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부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78이었다.

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손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주위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도구적지지 .74, 정보적지지 .62, 정서적지지 .79이었다.

3) 심리적 복지

심리적 복지는 부정적 정서인 우울과 긍정적 정서인 행복감으로 구성하였다. 우울은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CES-D)를 수정, 보완한 Lee(2005)의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생활전반에서 나타나는 우울과 관련된 9문항이다. 행복감은 Lyubomirsky(2001)가 개발한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 정도를 묻는 것으로 총 4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우울은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역점수화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가 높음을 의미하며 우울과 행복감의 신뢰도는 각각 .86과 .79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먼저,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와 상관계수,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트스트

래핑(Bootstrapping) 검정 방식을 사용하였다. 측정변인의 정규분포 가정은 왜도와 첨도를 통해 위반여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chi^2$ ,  $\chi^2/df$ 값, CFI, GFI, TLI, RMR, RMSEA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hi^2/df$ 는 3이하일 때 매우 양호하고, 5이하일 때 양호한 수준으로 간주한다. RMR은 0.05 이하이면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CFI, GFI, TLI는 0.9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라 할 수 있고, RMSEA는 0.05보다 작으면 매우 적합한 수준, 0.05~0.1 사이이면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Song, 2015).

IV. 연구 결과

1.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측정변인들의 정규분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 본 결과, 본 연구에서 포함된 측정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 값이 2 이하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2>. 조부모의 양육부담감, 사회적 지지, 심리적 복지의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는 정보적지지와 정서적지지 간 상관계수가 .623(p<.001)으로 가장 높았고 양육부담감과 정보적지지의 상관계수가 -.130(p<.05)로 가장 낮았다. 양육부담감은 사회적 지지, 행복과는 부적 상관 관계가 있었고, 우울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사회적 지지는 행복과는 정적,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Table 3>.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Analytic Variables

Variables	M	SD	Skewness(S.E.)	Kurtosis(S.E.)
Child-Rearing Burden 1	2.81	.66	.42(.15)	-.04(.31)
Child-Rearing Burden 2	2.86	.91	.26(.15)	-.59(.31)
Social Supports(Instrumental)	3.44	.62	-.45(.15)	1.15(.31)
Social Supports(Informative)	3.64	.55	-.58(.15)	.66(.31)
Social Supports(Emotional)	3.66	.53	-.53(.15)	.95(.31)
Psychological Well-Being (Depression)	2.85	.58	.55(.15)	.58(.31)
Psychological Well-Being (Happiness)	3.58	.60	-.56(.15)	.18(.31)

Table 3.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6	7
1. Child-Rearing Burden 1	1						
2. Child-Rearing Burden 2	.391***	1					
3. Social Supports(Instrumental)	-.191**	-.137*	1				
4. Social Supports(Informative)	-.130*	-.132*	.577***	1			
5. Social Supports(Emotional)	-.163**	-.162**	.591***	.623***	1		
6. Psychological Well-Being (Depression)	.355***	.485***	-.316***	-.214***	-.262***	1	
7. Psychological Well-Being (Happiness)	-.315***	-.375***	.324***	.331***	.399***	-.427***	1

\* p<.05, \*\* p<.01, \*\*\* p<.001

### 2. 측정 모형 분석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은 .55 ~ .81로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나 모형의 개념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여부를 살펴 본 결과 본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15.402$ ,  $\chi^2/df=1.400$ , CFI=.991, GFI=.983, TLI=.983, RMR=.013, RMSEA=.040으로 나타나 잠재변인의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구조모형 분석

#### 1)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분매개모형을 연

구모형으로 완전매개모형을 경합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부분매개모형은 매개변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유의하지만 완전 매개모형은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개효과만 유의한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모형은 양육부담감을 독립변인으로, 심리적 복지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후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부분 및 완전 매개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계수를 측정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 결과, CFI=.991, TLI=.983, RMSEA=.040으로 전반적으로 질적인 수준의 적합도를 보여 모형을 수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경합모형의 적합도는 CFI=.849, TLI=.736, RMSEA=.157로 전반적으로 적합도 수용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Table 5>. 두 모형의 상대적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한  $\chi^2$  감소율을 계산하면  $\chi^2$ 값은 약 69.520 감소하였고, 자유도는 1 감소하였으므로, 감소율은  $69.520/1=69.520$ 이었다. 이 값은 감소 기준치 3.84를 초과하였으므로 경합모형에 비해 연구모형의 간명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따라서 연구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4. Path Estimates of Latent Variables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B	$\beta$	S.E.	C.R.	P	SMC
Child-Rearing Burden	Child-Rearing Burden 1	1.00	.55	-	-	-	.30
	Child-Rearing Burden 2	1.78	.71	.29	6.26	***	.51
Social Supports	Instrumental Supports	1.00	.75	-	-	-	.56
	Informative Supports	.91	.77	.09	10.63	***	.59
	Emotional Supports	.93	.81	.09	10.85	***	.65
Psychological Well-Being	Depression	1.00	.67	-	-	-	.45
	Happiness	-.99	-.64	.13	-7.92	***	.41

Table 5. Model Fit Summary

Model	$\chi^2$	DF	p	CFI	GFI	TLI	RMR	RMSEA
Partial Mediation(Study Model)	15.402	11	.165	.991	.983	.983	.013	.040
Full Mediation(Competitive Model)	84.922	12	.000	.849	.919	.736	.054	.157
Acceptance Level				>.90	>.90	>.90	<.05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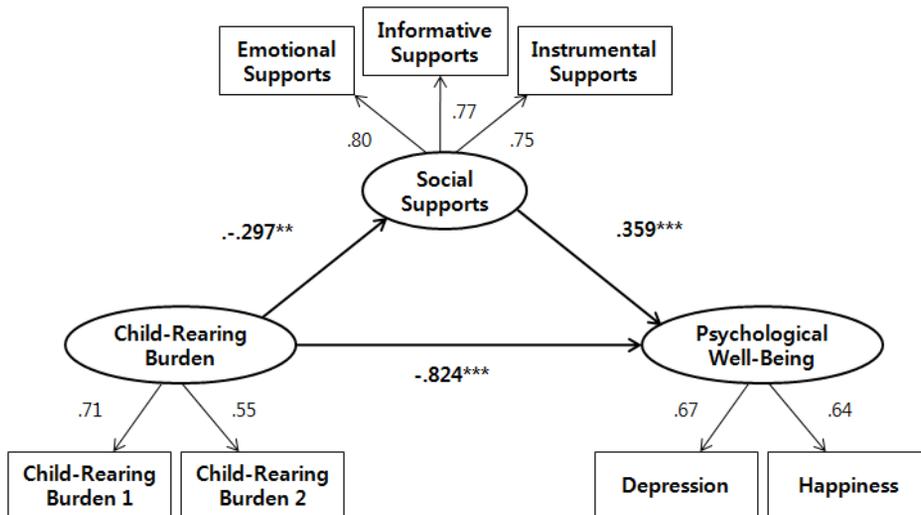
2)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의 구조 모형에 대한 검증결과는 <Figure 1>과 같다. 구조모형의 잠재변인 간 경로분석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되었다. 연구 모형의 경로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양육부담감은 사회적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 = -.297, p < .01$ ). 이는 조모가 양육 역할에 대한 부담을 적게 느낄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복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beta = .359, p < .001$ ) 이는 조모가 사회적 지지 체계를 많이 가질수록 심리적 복지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양육부담감은 심리적 복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 $\beta = -.824, p < .001$ ), 양육 역할에 대한 부담을 적

게 느낄수록 심리적 복지는 높았다.

조모의 양육부담감은 심리적 복지에 대한 직접 효과( $\beta = -.824, p < .001$ )와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수로 한 간접효과( $\beta = -.107, p < .01$ ), 총효과( $\beta = -.931, p < .001$ )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부담감과 심리적 복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양육부담감이 심리적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조모의 양육부담감과 심리적 복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부담감의 직접효과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p<.01, \*\*\* p<.001

Figure 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psychological well-being

Table 6.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Model

Path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Child-Rearing Burden → Social Supports	-.297**	-	-.297**
Child-Rearing Burden → Psychological Well-Being	-.824***	-.107**	-.931***
Social Supports → Psychological Well-Being	.359***	-	.359***

\* p&lt;.05, \*\* p&lt;.01, \*\*\* p&lt;.001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맞벌이를 하는 성인자녀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양육부담감, 사회적 지지, 심리적 복지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 조모의 양육부담감과 심리적 복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조모의 양육부담감은 사회적 지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조모의 양육부담감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난 Jo(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지각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다고 한 Lim(2009)과 Lee(2005)의 연구와는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조모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Song(2012)과 Bac(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사회적 지지가 조부모의 생활만족도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며(Kim & Kim, 2004; Yang, Chung, & Kim, 2008),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우울이 낮다고 한 Kim(200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양육 역할에 대한 부담이 적으면 사회적 지지 수준을 더 높게 인지하고, 이렇게 인식된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복지 수준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조모의 양육부담감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

(Lee, 2005; Lee, 2007; Park, 2013; Kim, 2015)과 일치한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양육에 따르는 부담감 수준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조모들이 양육부담을 높게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재해 줄 사회적 지지 자원들이 많이 있다면 심리적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며 손자녀를 키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문제들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심리적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사회적 지지는 조모들이 필요로 할 때 실제적으로 손자녀를 맡아준다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조언이나 정보 등을 제공해 주는 것, 신뢰와 애정, 친밀감 등을 느끼게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 내적으로는 정서적인 부분과 도구적인 부분의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선 가족들이 조모의 손자녀 양육에 따르는 어려움과 가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저출산 고령 사회를 대비한 가정과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정 교과는 변화하는 사회 및 가족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결혼과 출산, 양육, 성역할, 가족의 의미와 역할, 노인과 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교과이다. 세대 간 이해와 통합을 도모하고 미래의 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가정 교과 교육을 통해 가족가치관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손자녀를 맡기는 자녀들은 손자녀 돌봄이 조모로서 당연히 해주는 봉사나 희생이 아닌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고 그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임(Cho, 2006)을 인식하여 부모에게 양육시간에 비례한 적절

한 수고비를 정기적으로 드려야 하며, 양육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정시퇴근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정시퇴근의 경우는 개인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므로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기업적 차원의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전통 사회와 달리 현대의 가족은 핵가족화, 소가족화가 되면서 가족 내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게 차츰 어려운 현실이므로 사회적으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시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조모에 의한 양육 공백이 있을 때 손자녀를 맡아줄 아이돌보미 시스템의 활성화, 조부모 양육 수당, 손자녀 양육이나 고민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조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양육부담감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직접적으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양육부담감은 손자녀를 돌보면서 좋은 양육자로서의 확신이 없거나 두려운 경우에 커진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들이 달라진 육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손자녀의 연령에 따른 다양한 정보가 담긴 양육 매뉴얼을 제작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단체나 기관을 통해 배포하여 조모들에게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조부모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조부모 교육은 세 살마을 조부모교육 프로젝트,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주로 실시되고는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고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실시되는 부모교육 중 일부를 수요조사를 통해 조부모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손자녀가 어릴 경우 종일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는 조모들에게는 기관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은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 방문 교육서비스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양육부담감과 심리적 복지의 관련성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킨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표본 설정에 있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조부모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지원양육 조부모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측정대상을 보다 광범위하게 표집하여 신뢰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심리적 복지와 관련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파악을 통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질적인 연구가 병행된다면 손자녀 양육과 관련한 조모들의 다양한 스토리와 가족 및 사회에 대한 바람 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Bae, J. H. (2007).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parenting grandparents and co-parenting grandparents=Factors affect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Social Welfare Policy*, 29, 67-94.
- Baek, K. S. (2006). *A study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who raise their grand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Baker, L. A., & Silverstein, M. (2005). Depression symptoms among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The impact of participation in multiple roles. *Journal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6(3), 285-304
- Chae, H. R. (2010). *A study on rearing burden and satisfaction of grandparents who raising up their grand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Cho, Y. J. (2006). Grandchildren caregivers'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0(3), 1-21.
- Choi, H. K. (2002). Depression in low income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and its related factor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2(3), 227-222.
- Choi, I. H. (2014). The impact of grandparenting on life satisfaction among female older adults: Focusing on the effects of grandmothers' willingness to care and subjective perceptions of grandparenting. *Family and Culture*, 26(4), 118-138.

- Chu, O. N. (2007). *A study for child-care aspects of a grandparents-child family - based on seoul*.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Dowdell, E. B., & Sherwen, L. (1998). Grandmothers who raise grandchildren: A cross-generational challenge to caregiver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4(5), 8-13.
- Goodfellow, J. (2003). Grandparents as regular care providers: Unrecognised, undervalued and under-resourced. *Australas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28(3), 7-18.
- Han, S. S. (2008).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grandparent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in organized family and disorganized fami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Heywood, E. M. (2002).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An exploration of their parenting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rginia, Virginia, USA.
- Hong, S. H. (2004). *Health condi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grandparents who bring up grand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Jeong, J. H. (2012). *The effect of parenting environment and parenting burden in mothers of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and multiple disabilities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 Jo, M. H. (2012). *A study on the comparison awareness of proxy bringing-up by grandmother between working mothers and grand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 Jo, M. J. (2008). *Influences caused by parenting stress of grandparents in low income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ies and social supports to child abuse : Based on the visitors to social community cen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S. M. (2002). *A study of mother's parenting burden and desire of mental retardation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 Kang, Y. J. (2011). The psychosocial well-being of grandparent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The role of resources, type of care and perception of caregiving.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4(1), 73-97.
- Kelley, S. J., Whitley, D. M., Sipe, T. A., & Yorker, B. C. (2000). Psychological distress in grandmother kinship care provider: The role of resources, social support, and physical health. *Child Abuse and Neglect*, 24(3), 311-321.
- Kim, E. J., & Chung, S. D. (2011). Life satisfaction of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caregiving rewards, grandmother-adult parent relationship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54, 285-310
- Kim, E. J., & Seo, Y. H. (2007). A qualitative study on child-rearing by grandpar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8(2), 175-192.
- Kim, E. J. (2011). *A study on caregiving stress of grandmothers raising infant grandchildren : at double income households and working mother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G., Jae, K. S., Kong, I. S., & Noh, J. H. (2015). Childcare center and parents.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11(1), 1-22.
- Kim, H. S. (2005). A study on the emotional distress of low income custodial grandparent raising grandchildren in country and cit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8, 341-378.
- Kim, J. A. (2007). *A study on how social supports impact senior citizens' feeling of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Y. (2008). *Effect factors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elderly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Korea.
- Kim, M. H., & Kim, H. S. (2004).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grandparent's life satisfaction in low income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4(3), 153-170.
- Kim, M. J. (200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life satisfaction*

- in grandmothers parenting grand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 Y. (2001). *A study on the mental health of grandmothers who raise their grand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O. N. (2007). Caregiving burden and rewards for the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16, 59-84.
- Kim, S. Y., & Jeong, M. K. (2006). A study on working mothers' and grandmothers' perceptions of childcare.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1(5), 67-96.
- Kim, S. Y. (2015). *Multiple mediated effects of ego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Kim, Y. H. (2004). *Gender-role attitud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married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 Kim, Y. H. (2012). *The story of grandparents caring for grandchildren in infa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Paichai University, Daejeon, Korea.
- Kim, Y. M., Kim, M. H., & Jung, Y. J. (2008). An approach based on grounded theory about the care-giving experience of custodial grandpar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38, 123-163.
- Ko, J. S. (2006). *The relationships among the parenting-burden,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mothers of the child with disab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0). 한국아동패널 2009 기초분석보고서.
- Kwon, E. B. (2015). *Perceptions and supporting decisions about grandparenting of grandmother in transition: A qualitative study using FGI*.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Kwon, I. S.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rden and the social support of grandmothers caring their grandchildre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6(2), 212-223.
- Lee, D. G. (2007).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parenting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mothers with developmentally disable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Jeonbuk, Korea.
- Lee, E. J. (2007). *The research on the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of the old : focused mainly on the old living in c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 E. (2012). *Study on effect to psychological adaptation (happiness, depression) by perception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the rural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GyeongNam, Korea.
- Lee, J. W., & Han, G. H. (2008). Intergenerational triads of grandparent-headed famil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ustodial grandmothers in rural Korea.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8(1), 177-196.
- Lee, M. Y. (2008). *Mediation effects of social networks on parenting stress of grandparent as a caregiver fami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 Lee, S. A. (2014). *Effects of parental stress on depression of working mother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 J. (2005). *Life activity patter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older men retire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Lee, S. J.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ing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mothers of the child with the disability :Testing a mediating model of active coping strategy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Gwangju, Korea.
- Lee, S. J. (2008). *The burdens and the welfare demands of grandparents- grandchildren families in rural area and the welfare policies for th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 Lee, Y. S. (2008). *A study about grandparents' role portrayed in picture book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Lee, Y. W., & Kim, D. K. (2011). A study on relation between grandparent parenting stress and grandchildren depression, and mediation effect of the grandparent parenting attitude: Testing a developmental stages. *Journal of Youth Welfare, 13*(2), 1-22.
- Lim, E. K.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among mother with handicapped children: focusing on the personality, support, cop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yubomirsky, S. (2001). Why are some people happier than others? The role of cognitive and motivational processes in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6*(3), 239-249.
- Mandleco, B., Roper, S. O., & Dyches, T. (2007). Depression and caregiving burden in parents rais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Communicating Nursing Research, 40*, 504.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Musil, C. M. (1998). Health,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in grandmother caregiver. *Health Care for Woman International, 19*, 441-454.
- Nam, H. J. (2008).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stress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yeongNam, Korea.
- Oh, J. A. (2007). A structural model on the quality of life of grandmother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13*(2), 201-211.
- Ohem, M. S., & Chun, D. I. (2006). A study on caregiving burdens and social support about the low-income families of single parents. *Social Welfare Review, 11*, 75-108.
- Park, A. S.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ing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a mother having a child with autis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4*(1), 225-247.
- Park, H. J. (2013). *An exploratory study of factors affecting the elder's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 focusing on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GyeongGi, Korea.
- Park, J. M. (2011). *A comparative study between patents of preschooler with and without developmental delays on nurturing attitude, nurturing burden and family streng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 Park, J. Y. (2011). *The impact of family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affecting the psychological welfare of single parents and their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Pruchno, R., & Mckenney, D.(2002). Psychological well-being of black and white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Examination of a two-factor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ervice, 59B*(1), 444-452.
- Seo, J. E. (2011). *A study on grandparents who raise their grandchildren with focus on their parenting burden and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 Song, J. J. (2015). (개정 증보판)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 Song, J. Y. (2012). *A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Buk, Korea.
- Song, Y. M., & Lee, S. J. (2011).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tress coping behaviors in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of grandparents of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famil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1*(3), 795-811.
- Statistic Korea (2016).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Statistic Korea.
- Statistic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Whang, S. Y. (2008). *A study on the effect of welfare service and leisure activity service for the aged at home on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gin University, GyeongGi, Korea.
- Xiong, N., Yang, L., Yu, Y., Hou, J., Li, J., Li, Y., Liu, H., Zhang, Y., & Jiao, Z. (2011). Investigation of raising burden of children with autism, physical disability and mental disability in china.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2(1)*, 306-311.
- Yang, S. J. (2009).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affect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day-care grand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Yang, S. J., Chung, K. M., & Kim, W. K. (2008).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affect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day-care grandmother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3(4)*, 415-432.
- Yu, H. M. (2009). *Parenting burden of parents with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needs for social suppor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Yun, S. H. (2005). *The factors relevant to grandmothers' parenting stress in a grandparents-headed househo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Buk, Korea.
- Zarit, S. H., Reever, K. E., & Bach-Peterson, J. B. (1980). Relatives of the impaired elderly: Correlates of feelings of burden. *The Gerontologist, 20(6)*, 649-655.

#### <국문요약>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 249명을 대상으로 하여 양육부담감과 심리적 복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자료분석은 SPSS 22.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육부담감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사회적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쳐, 양육부담감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부담감은 심리적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양육부담감이 사회적 지지를 통해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양육부담감과 심리적 복지의 관련성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 논문접수일자: 2016년 10월 04일, 논문심사일자: 2016년 10월 12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12월 13일